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전(4부) 3시
서울 교회 02)533-9191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인천 교회 032)763-9191	금요일예배 (저녁)8시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3월 22일 (제104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컬 럼

면역력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면역력'이다. 몸 안에 병원균이나 독소 등의 항원이 공격할 때 이에 저항하는 능력이 면역력인데, 이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이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양성판정을 받아도 완치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과 약이 주목받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평상시 운동을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면역력이 생긴다. 또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줘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면역력은 필수다. 귀신도 세균처럼 보이지 않지만 약해진 영력을 타고 들어온다. 세균처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은 이렇다. 병들고, 가난하게 되고, 망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우울하게 된다. 그래서 철저한 예방책과 면역력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오직 말씀과 기도다.

늘 말씀을 상고하고, 늘 기도의 독을 채운 자는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행6:4)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하셨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에 귀신의 대장인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고, 말씀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던가.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세상 지식만 탐구하던 목사들을 많이 봤다. 처음에는 잠복기인지라 별 이상이 없지만, 점차 증상이 나타나는데 귀신에 감염되어 영혼이 병들고, 결국 세상으로 나가 영혼이 아예 죽는 것을 많이 봤다. 영혼이 잘 돼야 법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교훈 삼아 말씀과 기도로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 그래야 세균,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목사라고 귀신이 안 들어오던가. 세계적인 인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던가.

일이 잘 안 되는가? 건강을 잃었는가? 가정 내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국가와 기업에 문제가 있는가? 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요, 백신은 오직 말씀과 기도임을 꼭 기억하자.

녹슨 연장을 가는 것이 지혜다

목사님의 실업인 성공세미나에 18번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이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이의 삶에 적용되는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교회마다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기가 왔을 때 넉넉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역할

하여 비집고 들어와 할 수만 있으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끌고 가려 아우성치는 것이 그의 본업이고, 이는 거의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제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해도 연장에 녹이 스는 순간 당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들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외치는 것도 다 그래서이다. 어떠한 화전의 공격에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을 철저한 신앙으로 조직화하는 길밖에 없는 때문이다.

기도의 녹이 슬었는가? 찬양의 녹이 슬었는가? 말씀 묵상의 녹이 슬었는가? 전도의 열정에 녹이 슬었는가? 구제의 손길에 녹이 슬었는가? 다른 길이 없다. 날

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영적 배터리를 가득 충전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 즉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9). 귀신을 능히 쫓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주신 답이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하는 영적 용광로는 멈추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한다

을 하는 곳이다. 잘 타는 마른 장작과 더불어 생장작마저 태워버리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와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한다. 교회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영상을 통해 소수가 불을 지피다보니 우리 교회처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던 신앙생활에 흑여 녹이 슬지는 않을까 조심해야 할 때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악한 마귀는 결코 쉬지 않는다. 약한 틈만 있으면 귀신을 투입

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단 하나라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 날마다 사용한 연장을 깨끗이 닦아놓는 습관, 그리하여 언제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시퍼런 칼날로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목사님의 탁월한 비유를 기억할 것이다. "청소한다고 걸레질을 했으면 깨끗이 빨아서 말려놓아야 내일 또 다시 청소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여 한번 쓰고 처박아두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만다. 휴대폰 배터리도 하루 종일 켜두면 자기 전에 충전해놓아야 이튿날 문제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방전된 배터리로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해도 전화도 못할뿐더러 뉴스나 정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눅22:46)는 말씀을 끝으로 붙잡혀 가셨다.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녹이 슬면 끝이다. 그 연장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마귀의 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영적 긴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이 코로나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자. 날마다 연장을 갈자. 녹슬지 않도록. 이것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삶의 지혜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삿7:1~9)

두려워하는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미디안 족속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곡물과 각종 과실을 침탈해갔고, 양과 소와 나귀 등 소유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급기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굴을 파거나 산성을 쌓아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를 주목하셨던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런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으니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많다 하시며,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제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삿 7:1~8). 하나님은 이도 많다 하시며 감군명령을 내리시고,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상황도 시국도 모르고 타성에 젖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역대상 12장 32절에 '시세를 아는 자'라야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결국 개처럼 서서 물을 손으로 핥는 300명만을 차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300명이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겼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삿7:2). 즉 기드온의 군대가 뛰어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들의 담대함과 능력은 곧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366 번이나 계속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깔린 말씀입니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사실 기드온도 겁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을 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나의 집은 느밋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삿6:13~15)라고 손사래를 치며 두려워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양털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을까요? 그런 겁쟁이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매사가 두려운 겁쟁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이 말씀은 목회 초기에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목회 35년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5년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백만 있어도 두려움 것이 없을진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것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것 아 님 니 까 ? 엘 리 야 가 850대 1의 싸움에 담대했던 이유도,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의 꾀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적으로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8:26)라고 나무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예방책대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올무에

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과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시91:2~6).

그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하 리 니 대 저 나 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43:1~3).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으나 사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 것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옷깃 하나 타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고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악인 줄 알면서 악에서, 악의 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죽인다'는 험박이 두려워서입니다. 물론 두렵지요. 그러나 죄와 죄 뿌리기까지 대항하셨던 예수님처럼 담대해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불의인 줄 알면서 친구를 잃을까 봐, 배척당할까 봐 적당

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요셉처럼 단호히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실족하면 그 손을 잘라내고 천국에 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마18:8~9). 죽고자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에 봉착하면 대개 두려워합니다. 면접시험 치르러 갔을 때, 열심히 준비해갔지만 떨려서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죽 쭉고 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보이던 길도 안 보이고, 들리던 것도 안 들리고,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클수록 담대해야 합니다. 제가 키르기스스탄에서 KGB에 잡혀갔을 때 '할렐루야' 하며 그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담대하게 응대했더니, 그들이 되레 당황하며 저를 추방하는 것으로 일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히13:6).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부모들도 자식들 비위나 맞추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징계해야 합니다. 아들이 야한 그림만 그린다고 어느 어머니가 와서 하소연하기에 집에 가서 그림을 찢으며 혼내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 후에 담대하게 제가 지시한 대로 했더니, 아들이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늙어서 밥 못 얻어먹을까 봐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할 말 못 합니까? 그러면 진짜 늙어서 눈물 항아리 인생이 됩니다. 또 권력자나 재력가, 지력자도 존경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29:25).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그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From Internet ::

공포심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포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때꾸기와 같다고 비하하는 말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50년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가는 화물선에서 실수로 냉동컨테이너에 갇힌 선원 한 사람이 얼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냉동컨테이너에는 내용물이 없어서 전원은 꺼져있었고 실내온도는 영상 19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상력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남긴 기록에는 실제로 추위를 느꼈고 몸이 얼어서 점점 굳어져 간다고 하였습니다. 공포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적, 극심한 공포심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이러저러할 때 28가지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가지의 때는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때이지만 나머지 14가지의 때는 부정적이고 슬픔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믿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복 받은 자입니다.

교회마다 예배나 모임 자체를 자제하고 주일에도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든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속히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예배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성경예세이 ::

내 차가 아니니까

여보게!

기도원에 잠시 머무를 때의 얘기라네. 어느 날 담양 쪽에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목사와 차를 타고 나갔네. 그런데 그 날 운전해주는 집사가 도로에 있는 안전턱을 넘어가면서 덜커덩 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만 ‘좀 살살 넘어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탔던 목사가 내게 “목사님, 자기 차가 아니니까 저렇게 운전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운전해주는 집사가 민망했겠지만, 그 목사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

길에다 침을 뱉고 휴지를 버리는 것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라네. 자기 집에 그러겠는가. 공중화장실이 더러운 이유는 자기 집 화장실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그런 거고.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물을 평평 틀어놓고 이를 닦거나 비누칠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기 것이라면 그러겠나.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차에서 유리를 내리고 담배꽂초를 밖으로 훑 버리는 운전자들이 있지. 거리는 더러워지거나 말거나 자기 차는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문득 생각나는 게 있네. 예전에 내가 타던 차를 아들에게 준 적이 있었네. 그랬

더니 그 녀석이 그렇게 차를 열심히 세차하더라고. 내가 탈 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다른 얘기도 할까? 기도원에 사과나무가 많은데, 사과가 많이 썩었더군. 바로 앞마을 사과는 크고 싱싱한데 말일세.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 장로가 그러더군. 자기 것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맞는 말이네.

왜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지 아는가? 공산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일한대로 자기 것이 된다면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일할 테지만, 어차피 공동의 것이고 일정하게 분배되는 것이니 대충하는 거라네.

여보게!

성공하고 싶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기업이 라고 생각하게. 그럼 지금처럼 대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될 거야. 그러면 상사의 눈에 들어 승진하게 되지 않겠나. 만사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성공한다네.

朋友

굳나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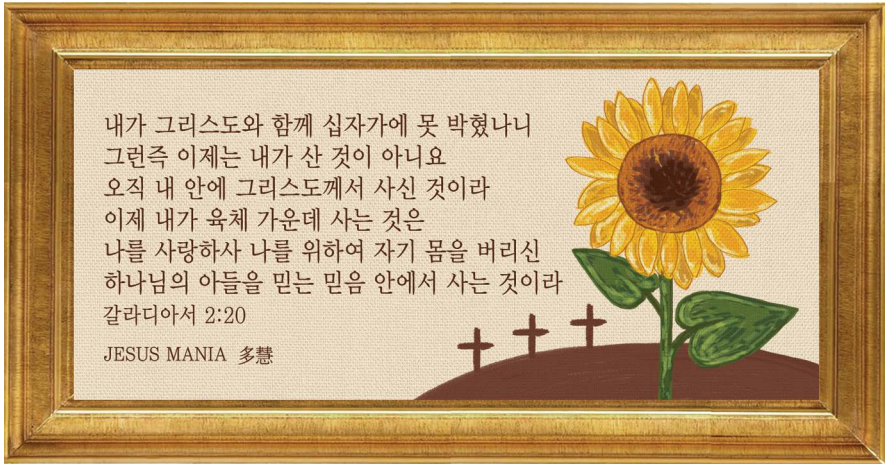
어느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되자 자식들이 다 모였다.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작별 키스를 했다. 엄마는 첫째와 둘째를 불러서 “이제 엄마에게 굳나잇 키스를 해다오.”라고 했고, “엄마, 굳나잇” 하며 두 아들이 인사를 했다. 그런데 셋째를 불러서는 “너는 엄마에게 굳바이 키스를 하렴.” 했다. 셋째는 왜 엄마가 형들에게는 굳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자기에게만 굳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엄마는 “형들과는 곧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해도 고집부리고 안 갔잖니. 예수님을 전해도 너는 전혀 믿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굳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셋째가 엄마 품에 안겨 펄펄 울며 말

했다. “엄마, 저도 굳나잇 키스를 할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갈 거예요. 엄마,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엄마는 셋째 얼굴에 입을 맞추며 ‘굳나잇’ 하고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

누구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작별을 한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누가 그 이치를 뒤집을까. 그러나 우리의 이별이 지나치게 슬프지 않은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 다시 볼 수 없음은 애석하고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지만, 다시 만남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친 슬픔을 자제할 수 있다.

그날이 되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도 만나고, 앞서간 믿음의 동지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굳바이가 아닌 ‘굳나잇!’

예수중심편집실



:: 내가 매일 기쁘게 ::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이 다행!

작년 10월, 나는 공황발작을 겪었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나의 아픔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 남편이 빠르게 졸업을 하고 예정되어 있던 직장으로 취직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남편의 직장내 중간 지점으로 이사를 결정하였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졌다. 공황장애 진단과 남편의 졸업, 취직과 이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장기 휴원 등.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머리가 어질어질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나는 잔잔한 강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때, 내가 공황발작을 겪지 않았다면, 남편의 졸업이 한 학기 미뤄졌을 것이고. 그때 남편이 취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휴원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주었을 것이다. 그때 학원이 쉬지 않았다면, 낯선 곳으로의 이사가 어려웠을 것이고…. 길지도 짧지도 않은 3개월의 시간을 되돌려보면 순간마다 아주 잘 다듬어진 각본처럼 잘 맞춰진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나의 아픔을 시작으로 작금의 사회적 위기까지도 나에게서는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디딤돌이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이 다행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갇난아기 모세도 그 어미와 생이별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돌아갔을 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아주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으로 인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이다. 부디 이 시간이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생기지 않고 마무리되길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해본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시간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었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본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다 잘 아는 디즈니랜드의 창설자 월트 디즈니는 25살 때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 주는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25살 때부터 55살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계도가 다 헤어지고 너털너털해 지도록 30년간 투자자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30년 만에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30년 만에 만난 투자자인 은행지점장은 그의 설명을 듣고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정열에 감동했소. 우리 은행에서 책임지고 투자하겠소.”라고 했고, 투자 성립으로 디즈니 나이 55세에 로스앤젤레스 옆 사막 위에 디즈니랜드를 세워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9살 때부터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늘 그림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만화가가 되려고 여러 회사를 찾다가 겨우 한 회사에 입사를 하긴 했는데 몇 달 만에 만화가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6개월간 집세를 못 내자 집에서 쫓겨나 오갈 데가 없어진 그는 교회에 가서 뒷좌석에 앉아 평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갈 데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하고 울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하기에 “목사님, 나는 만화를 그려서 성공하고 싶는데 실력 없다고 해고를 당해서 오갈 데도 없고, 나를 믿어주는 데도 없으셔서 주는 데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며 오직 당신 편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창고가 하나 있는데 침대만 놓으면 잠은 잘 수 있으니깐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사용하세요.”하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에서 꿈과 상상력을 키우며 작업하여 마침내 디즈니랜드 설계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5살에 설계도 그림을 다 만들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을 쉬지 않고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참 끈질긴 일입니다. 30년을 포기하지 않고 투자자를 찾아다니다 결국 찾아내서 55살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같이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5~38)입니다. 이 말씀이 그를 강건하게 목표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편안하고 안일함을 버리고 창고에서 드나드는 쥐들과 함께 살며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그리는 것, 기도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손에 잡을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받침대입니다. 또 믿음이란 내 머리, 내 생각, 내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따르며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의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 하16:9). 지금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는 것, 따르는 것,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3).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상황이 이쯤 되니, 공포나 두려움이 ‘코로나19’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느낌이다. TV를 켜도, 신문을 봐도, 감염자가 줄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감염자 수는 물론 SNS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준 덕에 몰라도 되는 정보까지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택배 상자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소문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특히 마스크 파동으로 수백 미터의 대기 줄을 만드는데 그런데도 마스크 한 개조차 사지 못한 이들의 울분까지 6·25사변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했던 유행어가 현실이 된 요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일상이 마비되는 걸 보면서 문득 영화「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곤 이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 없는 한 연주자로부터 시작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이 생각났다. 그 영화에서 ‘평화로우며’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존재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아마 힘든 시간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다 보니 불안한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지나친 기우(杞憂)로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요즘 필자는 빌립보서 4장 4~7절 말씀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읊어댄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필자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든 시기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다. 늘 듣던 말씀이고 읽던 구절인데 그 당시 매일같이 읽고 또 읽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핵심이라는 것을 그때 참 깨달았다.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내 환경에 대한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든든한 느낌은 나의 시선이 위기상황에 머물지 않고, 또 초라한 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오직 이 땅을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안은 주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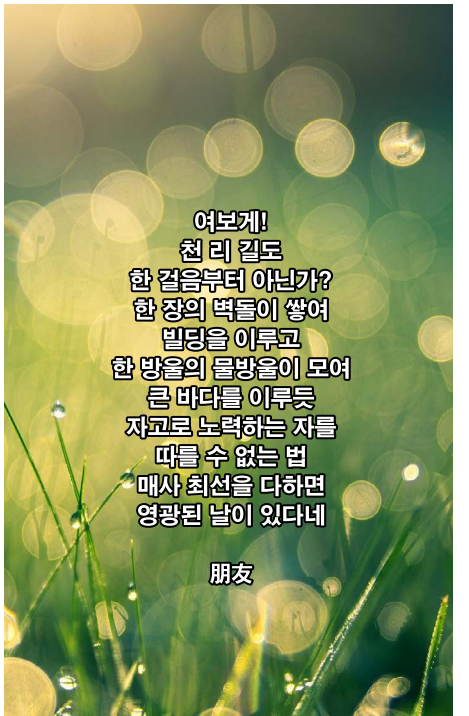
참 평안은 풍랑 속에서 더욱 진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군대는 환난 속에서 남다르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한다. 매일매일, 들이닥쳐서 막아낼 수 없는 나쁜 소식에 매몰되더라도 내 삶의 방향키와 이 나라의 방향키를 잡고 계신 분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현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빌4:7). 이 글을 쓰고 있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가 거센 비바람과 부딪치니 성난 것처럼 파도가 높게인다. 하지만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요하고 잠잠하지 않을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비전을 품게 되는 기회로 삼길 소망해본다. “여호와와 의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 하16:9). 지금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는 것, 따르는 것,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3).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믿음의 신비한 힘

아프리카 드넓은 초원에 평온하게 풀을 뜯어 먹는 얼룩말이 있다. 언뜻 볼 때 평온해보이지만, 사실 이런 얼룩말은 늘 사자와 같은 아프리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그래서 평온하게 풀을 뜯다가도 갑자기 굶주린 맹수를 만나면 사력을 다해 도망가야 한다. 이때 얼룩말의 스트레스 지수는 급상승하고, 모든 장기들의 기능은 오직 ‘도망’과 ‘생존’에 집중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얼룩말은 언제 쫓겨나는 듯 다시 평온하게 풀을 뜯는다. 왜 좀 더 일찍 도망치지 않았을까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또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무심하고 평안하게 풀을 뜯어먹는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대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다. 우리는 얼룩말과 같은 평정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극도의 불안과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성경 전도서에 따르면 인생은 ‘형통’과 ‘곤고함’이라는 신비함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안 심리로 외출을 자제하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외부와 단절한 채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때 순간 형통과 곤고함은 늘 존재했다. 두려움은 알고 보면 참새를 속이려고 세워둔 허수아비 같은 무기력의 표본이다. 허수아비에 붙잡혀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어버린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내 힘과 능력과 근심과 염려로도 닿을 수 없는 부분은 믿음이라는 신비한 힘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자신을 두려움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옥 전도사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 수록 더욱 기도하자!